

제 3 강 : 성령에 사로잡힌 지도자

비전의 사람은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 서론 /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지도자이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도자의 모델이 됩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성령의 사람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양심이 깨끗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불과 능력의 사람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 그는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7-39).

성령이 임하실 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참된 지도자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 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환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요6:63).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비전은 이스라엘의 절망이 변하여 참된 희망이 되며 분열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다윗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되는 비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비전을 가질 뿐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 받은 참된 지도자는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교회가 부흥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축복 받을 것을 믿으며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 그는 보혈로 양심을 씻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자는 양심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격보다 더 중요한 지도력이 없고 인격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4).

성령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보혈의 피로 양심과 그 몸을 깨끗이 씻은 자이며 그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양심이 화인을 맞고(딤후 4:2) 더러워진 자는(디도서 1장 15절)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4.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욱 더 강한 성령의 임재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 6:18).

참된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삼년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두 무릎사이에 얼굴을 놓고 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일 뿐 아니라 능력의 원천입니다.

5. 그는 불의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흥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영적인 일이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갖는 참된 권위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섬김은 종의 모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영적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6. 그는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땅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땅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모든 족속에게 가 있고 그의 관심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19:21)”고 했고 주님께서는 밤에 환상 중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행23:11)”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습니다(롬15:22-24). 그는 땅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